

살·인·폭·염

나주서 60대 숨져...익사사고 속출 물고기 떼죽음...농작물·가축 피해도

9월초까지 무더위 계속

6일 순천시 황전면의 낮기온이 섭씨 37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계속되면서 무더위를 식히려다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과 함께 갑작스런 일기변화에 따른 정전 사고와 물고기 폐사 등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익사사고 속출=6일 오후 2시40분경 영광군 법성읍 모 관광농원 풀장에서 김모(6·영광군 홍농읍)군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군이 자신의 키(1m)보다 더 수심이 깊은 풀에서 놀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오후 5시경 영광군 삼호면 대불대 근처 영산강과 영암호를 잇는 수로를 넘어져 간던 윤모(51)씨가 실종됐다. 경찰은 윤씨가 무더위를 피해 수영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5도가 웃도는 맹밭이 내리쬐던 지난 4일 오후 2시경 나주시 세지면의 한 고추밭에서 일하던 정모(여·62)씨가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정씨가 일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전·물고기 폐사도=지난 4일 오후 4시30분경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인근 전선이 낙뢰에 맞아 끊어지면서 일대 200여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이중 150여 가구는 한전의 복구로 5분여 만에 전기가 공급됐지만, 50여 가구는 40여분간 전기가

끊겨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오전 7시경 광주시 서구 유덕동 광주천 수중보 인근에서 붓어 등 물고기 70~80마리가 떼죽음을 채 발견됐다. 이날 물고기 폐사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쏟아진 소나기로 물속 오염물질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더운 날씨에 부패하면서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낮아져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작물·가축관리 비상=장마에 이어 고온이 지속돼 발작물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영광지역의 경우 고추 재배면적 1천104ha중 12~13%에서 역병, 숨해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에 의해 고추 색이 검어지고 구부러지는 '시들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축관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젓소는 더위 스트레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우유생산량이 최고 20%까지 감소하고 분만 실패율이 40%에 이른다. 기온이 너무 높으면 돼지의 분만율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농가에서는 어미돼지에게 하루 평균 2~3차례 얼음을 먹이는 등 피해예방에 만간힘을 쏟고 있다.
◇당분간 무더위 지속=기상청은 1개월 예보를 통해 올 여름 무더위는 9월 상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9월 초까지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밤의 쇼핑 피서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이 쇼핑 행태도 바꾸었다. 한밤 불볕더위에 지친 쇼핑객들이 야간 쇼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광주 시내 모 할인점의 매장이 심야 쇼핑객들로 북적하고 있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盧대통령 “인사권 존중해 달라”

金の장 사과...고위 ‘당·정·청協’ 신설키로

어제 당·정 오찬 회동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대통령의 인사권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적 권한”이라며 “그것을(당)이 존중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당의 조언과 건의에 대해 경청하기로 했으며 당은 합당한 방식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인사 문제 등 민감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간 형성됐던 불협화음은 일단 봉합됐으나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인선과 관련된 노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 경우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과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

어정부는 균형과 경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어느 누구도 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마지막까지 권력형 게이트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사권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탈당 문제와 관련, “탈당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끝난 후에도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 “당을 잘 지키고 있으면 좋은 선장이 될 수도 있고, 당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면서 “이 배를 떠나서 다른 배를 타게 되면 노선과 정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는 당도 이견이 없다”며 “다만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심이 많이 떠나있기 때문에 민심을 거슬리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다”고 당의 의견을 전달했

다. 이성현 의원은 “대통령과 당이 공동운명체이므로 당이 국민 여론을 수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냐”며 “인사문제에 대해 건의는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회동에는 노 대통령과 김 의장, 김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상임고문자격으로 천정배 전 법무, 정세균 산자부 장관, 한명숙 총리, 청와대 이병관 비서실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김부총리 사표 수리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오찬회동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 사표수리 여부에 대해 “아마 내일 수리하실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농산물 경제논리 실종

수입농산물 급증...생산↓≒가격↑

국내 농산물 시장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황이 나빠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기는 커녕 하락하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수입 농산물, 작황이 나빠 경우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 수입업자들이 해당 품목 수입과 유통 물량을 늘리면서 농산물 가격 구조가 왜곡됐기 때문이다. 결국 수입 농산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수

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산 김치가 국산 김치 시장을 파고들면서 김치 담글 때 사용하는 마늘과 고추에 대한 내수도 함께 줄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마늘의 경우는 중국내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져 국내 수입 증가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 시장 흐름을 파악하려면 중국 산 동성 등 지역의 작황과 수입물량 추이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늘 생산 12% 줄었는데 가격 15% 떨어져 고추도 16% 생산감소 불구하고 가격은 9% 하락

확을 끝낸 국내 마늘 생산량은 33만1천t으로 작년보다 11.6% 줄었지만 지난 7월 난지형 마늘 상품 1kg당 도매가는 1천77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 가량 하락했다.

수확기(8~10월)에 접어들고 고추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7.6% 줄어든 데다 잦은 강우로 생육도 부진, 금년산 생산량이 13만6천t으로 1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상품 화근초(불을 사용해 말린 고추) 600g당 도매가는 4천35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농촌경제연구원은 마늘과 고추의 경우 중국산 김치 수입의 증가로 국내 소비가 줄어

전남도 관계자는 “국내 유통업자들이 비축하고 있던 고추와 마늘의 공급량을 늘린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최근의 현상을 분석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4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농산물 수입여건과 관련, 시장 개방확대로 인해 과거처럼 국내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지난해 김치 수입량은 11만1천459t으로 2001년의 283.6배로 늘었고 고추(8만3천137t)는 9.23배, 마늘(4만2천152t)은 1.78배, 양파(4만1천181t)는 6.0배로 각각 증가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태풍 제7·8호 북상중

기상청은 5일 발생한 제7호 태풍 ‘마리아(MARIA)’와 제8호 태풍 ‘사오마이(SAOMAI)’가 북상 중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소형급인 ‘마리아’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시속 20km

의 속도로 일본 도쿄(東京) 남남동쪽 약 91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서진하고 있으며 9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남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오마이’는 5일 미국 괌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6일 오후 3시 현재 시속 30km의 속도로 괌 북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서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http://www.no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cnu.ac.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總物價情報
http://www.kpi.or.kr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www.kukjepharm.co.kr

사랑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제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관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담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키알레 점안액: 당뇨, 당뇨병, 제2형 당뇨, 제1형 당뇨, 노인 당뇨병, 임신 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폐색전증, 심부전, 심근비위축, 심근경색 후 합병증, 고지혈증,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폐색전증, 심부전, 심근비위축, 심근경색 후 합병증.
- 신도플 류스완연: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골관절염, 관절염, 만성염색성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 골연골 비대증, 골연골 비대증, 골연골 비대증, 골연골 비대증.
- 비어플 점안액: 안과 질환, 안과 질환, 안과 질환, 안과 질환.

고객을 위한 전화: 090-022-2200 (주선: 새 아침) 평일만부 고객 센터

국제약품의 기업명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약재의 재질, 도제, 품질, 효능, 유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